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나다'

부안군,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 2층 전당에서 6월 12일까지 개최

부안군은 고려청자의 아름다움과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4주간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 2층 전당에서 2026년도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나다' 특별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후원하며 전북특별자치도박물관미술관협회의와 군을 비롯한 도내 7개 박물관이 참여한다.

전시 주제는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나다'로 부안청자박물관 소장 고려청자 재현품이 진열장에 전시된다.

주자, 찻사발, 다식 접시, 차통, 다연 등 다양한 차 도구 세트를 비롯해 청자 장고 등 희귀한 작품이 선보이며 휴게소 이용객들은 부안 고려청자감정자의 예술성과 역사적 가치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고속도로 휴게소라는 일상적 공간을 문화와 예술을 체험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로 이동 중에도 역사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함유 모델을 제시한다.



오는 6월 12일까지 새만금고속도로 김제휴게소(새만금 방향) 2층 전당에서 2026년도 박물관 in 휴게소 전시 '천년 비색 부안청자, 길 위에서 만나다' 특별전시가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주말에는 지역 작가가 참여하는 삼각기법 시연과 청자 무늬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청자 관련 굿즈도 판매된다.

관람객들은 단순히 전시를 보는 것을 넘어 청자 빚는 과정을 실경하고 청자에 무늬를 그려볼 수 있는 재미있는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원도심 거리에 예술을 입히다

군산 개복동, 야외갤러리로 변신

과거 군산 영화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개복동 거리가 원도심 공동화로 한동안 활력을 잃었으나, 감각적인 야외갤러리로 새롭게 탈바꿈하며 트렌디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다.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침체된 개복동 거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 시민예술촌 외벽을 활용한 야외갤러리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낡고 빛바랜 원도심의 풍경(Old)과 감각적이고 신선한 현대예술(New)을 접목해 개복동을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거리

로 재생하고자 기획했다.

개복동은 과거 극장가가 밀집해 군산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도심 확장과 인구 유출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버렸다. 재단은 이러한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문화예술로 극복하고자 미술관이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 거리를 전시 공간으로 확장하는 '예술로 거리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개복동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첫 번째 팝업 전시는 오혜은 작가의 '건물 사이에 들어찬 빛'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개복동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야외갤러리 현장에서 오혜은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개전식이 열릴 예정이다. /군산=김민호 기자

완주문화관광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 신나는 '누에 놀토' 운영

(재)완주문화관광재단 복합문화지구 누에는 지역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누에 오픈공방'과 '토요 놀이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누에 오픈공방'은 도예도를 활용해 가족 얼굴, 우리 집, 반려동물 등 가족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공예 체험 프로그램이며, 잔

디광장에서 진행되는 '토요놀이터'는 어린이와 가족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야외 놀이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보다 쾌적하고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약제를 도입했다. 예약 미달 또는 취소로 잔여석이 발생할 경우 현장 접수도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8부 '굿패와 사랑' (12)

나 여기서 살려고 왔어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그렇게 나아가 서른이 넘도록 혼자 지냈어요. 지난 번 그분 때문에 언니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언니는 오로지 그분만을 생각했구나 싶었어요. 언니는 그분만을 기다렸구나 싶었던 거예요. 게다가 두 분은 어쩌면 상징적인 분들이예요. 언니가 몇 번이나 시연을 말했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두 마을이 서로 깊은 상처를 줘서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령님이 두 분을 살렸어요. 두 분에게 전형을 줬지만 두 분이 만나서 그 상처를 씻어내었으면 하는 책무를 신령님께서 주신 것 아닐까요. 게다가 어제 그 수녀라는 사람이 와서 나병은 전염되는 병도 아니라고 하고."

명희는 잠자코 순옥의 말을 듣고 있었다. 순옥이 말하지 않아도 명희도 충분히 마음 속에 담아둔 것들이었다.

보름 뒤, 명희의 집 대문 밑에 몇 달 전과 마찬가지로 달걀 꾸러미가 놓여 있었고 꾸러미에 곱게 접힌 경지가 끼워져 있었다. 순옥은 경지를 펼쳤다. 남준이 명희에게 보낸 편지였다. 순옥은 명희에게 편지를 읽어줬다.

"명희를 찾고 명희 앞에 서는 게 너무 두렵고 겁이 났어. 죄 많은 나는 하늘의 벌을 받았고 그 벌로 인해 명희에게 피해를 줄까봐 명희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어. 하지만, 명희가 보고 싶고 너무 궁금했어. 오래 전 명희와 헤어질 때까지 갖고 있던 명희에 대한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하지만 나로 인해 명희에게 피해를 줄까봐 감히 명희에게 예전처럼 다가갈 수 없어. 수녀님은 내 병이 전염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명희도 나쁘게 보지 않으려 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지금의 명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이대로 살면서 명희의 행복을 빌어주고 싶고 가끔 이렇게 소식만을 전하고 싶어."

명희는 순옥의 손에서 남준의 편지를 가져가 가지런히 접어 손에 쥐고 오랫동안 머리를 가볍게 앞뒤로 흔들면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명희는 순옥을 불렀다. "나를 동해원까지 데려다 줄래?" 순옥은 명희의 부탁대로 명희와 동해원 마을까지 동행했고, 남준의 집을 풀어 남준의 집으로 갔다. 명희는 십여 일 뒤에 곳이 있는데 그때나 자신을 찾으러 오라고 하고 순옥을 연기마을로 돌려보냈다.

해가 떨어질 무렵, 남준은 발에서 돌아와 마투에 명희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문 앞에서 우뚝 멈춰서

고 말했다. "명희야....." "왔어? 나 여기서 살려고 왔어." "으흠으흠....., 명희야....." 남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명희에게 다가와 명희를 안았고, 명희는 남준의 품에 꼭 안겼다.

둘 모두 서른이 넘은 나이였지만 서로 처음 밤을 맞이했고 서로를 부끄러워했으며 부끄러운 만큼 뜨거웠고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감정을 풀기에 하룻밤은 남준과 명희에게 짧았다.

깊은 밤, 둘은 남준의 방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그때 산에서 남준을 그렇게 보내놓고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 "날 미워하지 않아?" "누가 잘 했고 누가 잘못 했겠어. 우리 서로가 죄인 뿐이야. 그래서 우리 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순옥이가 그러더라고. 서로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가 만나야 한다고 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준은 명희를 꼭 안았다. 명희는 같이 살기를 원했지만 남준은 명희의 무언가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같이 산다 해도 명희는 무업을 계속 이어나가야 했는데 동해원에 살면서 무업을 할 수는 없었다. 명희 스스로 혼자 남준의 집에 올 수 없었으므로 남준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늦은 밤에 명희의 집을 방문하기로 묵시적 약속을 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